



“원 없이 살아본 50년 가정 못 지킨 전 후회”

조영남, 부산서 20일 50주년 콘서트

1960년대 ‘달라일라’로 데뷔
‘모란 동백’·‘화개장터’ 등 히트

17일부터 서울서 ‘초대전’도
“미술에서 무한의 자유로움 느껴”

“젊은 시절 아이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가정을 돌보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합니다.” 가수 조영남(78)은 최근 인터뷰에서 “평생 육먹는 것을 무시하며 살아왔고, 그간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봐서 버킷리스트가 없다”면서도 가슴 한편에 남은 후회를 이같이 풀어냈다.

그가 오는 20일 데뷔 50주년 기념 부산 콘서트에서 선보일 신곡 제목도 ‘후회하네’이다. 50여년 가수 생활을 망라하는 소회가 후회라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다.

조영남은 “오래 살다 보니 후회할 것이 많이 남더라”며 “내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서 잘난 척하고, 떠돌고, 문제를 일으키고, 재판도 받고 그런 것들”이라고 돌아봤다. 그는 이 노래에서 나긋나긋한 톤으로 ‘후회하네’라고 곱씹다가 ‘사랑하네’라고 노래한 뒤 ‘미안해요’로 끝맺는다.

조영남은 “내 대표곡은 ‘모란 동백’이지만 마지막 노래는 ‘후회하네’가 될 것 같다”며 “마지막 프랭크 시나트라 ‘마이 웨이’(My Way) 같은 노래”라고 소개했다.

그는 부산 소향씨어터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또 다른 신곡인 ‘세종대왕’, ‘이순신’을 비롯해 ‘달라일라’, ‘화개장터’, ‘제비’ 등의 대표곡을 부른다. 그는 “공연을 즐기 살기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남은 성악을 공부하던 1960년대 청년 문화의 메카인 세시봉에 눌러 갔다가 우연히 노래하게 되면서 대중음악에 눈을 떴다. 세시봉 DJ 이백천의 추천으로 오디션 을 보고 당시 여느 가수들이 그랬듯 미8군 무대에서 활동했다. 그러다 1969년 톰

존스의 노래를 변안한 ‘달라일라’로 TBC ‘쇼쇼쇼’ 무대를 통해 정식 데뷔했다. 이후 ‘모란 동백’, ‘화개장터’ 등의 히트곡을 내며 인기를 끌었다. 송창식·윤형주와 더불어 세시봉으로 대표 되는 우리나라 ‘청년 문화’가 꽃피우던 시기의 한가운데 섰다.

데뷔 50주년은 1969년 TBC ‘쇼쇼쇼’ 무대 기준으로 지난 2019년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와 무죄가 선고된 그림 대작 논란 등으로 몇 년 미뤄졌다.

조영남은 “예전에는 유행가의 가사 형식이 따로 있었다”며 “그런데 나, 최인호(소설가), 이장희, 송창식 이런 사람들이 그 형식을 뒤엎고 자유롭게 서양 것과 접목해서 같은 가사를 쓰기 시작했다. 과거보다 훨씬 자유로운 ‘청년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자랑했다.

“당시 ‘달라일라’를 부를 때 와이셔츠를 반쯤 벗었는데, 이게 당시로서는 엄청난 파격이었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이번 인터뷰는 한강과 영동대교가 내려다보이는 그의 자택에서 진행됐다. 집안은 조영남의 손길이 닿은 미술 작품으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물감이 잔뜩 묻은 ‘작업복’을 입고 손으로는 그림 그리기를 멈추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다.

“내가 봐도 정말 이상해요. 가수로 55년 가까이 살아왔다는 게. 현미, 서세원, 이동원, 박인수 등 근래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살아 있으니 참 모

전 목숨입니다.”

조영남은 “나는 우리말로 ‘재수가 있다’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나는 평생 재수가 좋다”며 “이 나이에 콘서트도 하고 전시회도 열 수 있어서”라고 말했다.

기억에 남는 ‘재수 좋은’ 순간이 언제였느냐고 묻자 그는 “미국 카네기홀, 오스트리아 빈 콘체르트하우스,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 같은 최고의 장소에서 공연했을 때가 가장 맛있는 순간이었다”고 답했다.

전국을 떠돌며 만든 대작 논란에 대해선 “미술을 좋아하던 평범한 가수를 화가로 만들어줬다”고 특유의 화법으로 말했다. “50년간 사랑을 받았으니 한 5년 ‘유배 생활’(대작 논란으로 인한 활동 중단 기간)을 한 것은 견뎌야 해요. 내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죠.”

조영남은 오는 17일부터 서울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에서 ‘조영남 초대전’도 연다. 출판작 가운데에는 그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화두 소재 작품이 눈에 띈다.

조영남은 “앤디 워홀에게 코카콜라가 있다면 조영남에게는 화투가 있다”며 “화투 그림은 한국적인 팝 아트”라고 해석했다.

그는 기타를 들고 오더니 가장 낮은 음과 가장 높은 음을 쳐 보였다. 그는 “음악은 이렇게 저음과 고음의 경계 안에서 연주해야 하는 규칙이 있다. 피아노도 건반 개수에 맞춰 쳐야 한다”며 “미술은 전혀 그런 제약이 없다. 100% 자유”라고 강조했다.

“미술에서 나는 대양(大洋)이나 창공 같은 무한대의 자유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연합뉴스

다큐 ‘문재인입니다’ 첫 날 1만3천명 관람

박스오피스 3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일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가 개봉 첫날 1만3000여 명의 관객을 모았다.

1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창재 감독의 ‘문재인입니다’는 개봉 일일 전일 1만2710명을 동원했다.

같은 날 박스오피스 순위로는 마블 스튜디오 신작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9만7145명)와 애니메이션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1만4910명)에 이어 3위였다. 4위는 박서준·아이유 주연의 한국 영화 ‘드립’(1만2652명)이다.

‘문재인입니다’의 개봉일 관객수는 이 감독이 2017년 선보인 다큐 영화 ‘노무현입니다’의 개봉 첫날 관객수(7만8천816명)에는 못 미친다. ‘노무현입니다’는 개봉 후 총 185만명을 모았다.



‘문재인입니다’는 문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퇴임 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돌아가 보내는 일상에 초점을 맞췄다. 문 전 대통령이 평산마을에 도착한 북부터 가을까지 시간적 순서를 따른다. /연합뉴스

암 판정부터 임종까지...다큐 ‘울지마 엄마’

암 환자 사실적 묘사... 17일 개봉

“지금은 다른 치료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은 받아들이려 할 때예요.” 진찰실에서 의사가 환자 김경화 씨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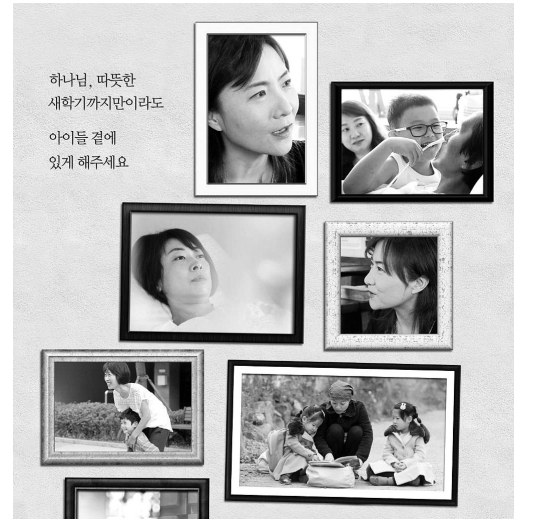
마흔도 안 돼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김 씨는 그날부터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할 준비에 들어간다. 아직 초등학교에도 안 들어간 아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호경 감독의 ‘울지마 엄마’는 암 환자 4명이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이 중엔 이 감독의 누나도 있다. 이 감독은 2014년 누나가 위암 4기 판정을 받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암 환자 커뮤니티에 가입했고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큐에 담았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마련이고 죽을 때까지 남아 있는 시간을 사는 것이지만,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아는 암 환자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본다. ‘울지마 엄마’는 이들의 말을 들려준다.

“왜 하필 내가 이런 암에 걸렸지?” 유방암 4기 판정을 받은 30대 초등학교 교사 김현정 씨의 말이다. “너무 욕심내며 살지 말고 그때그때 즐기면



서 살 걸 그랬어요.” 카메라는 항상 치료를 받기 위해 머리를 미는 김 씨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보여준다. 울음을 참으려고 하는 김 씨의 볼에 눈물이 흐른다.

판단은 관객의 몫으로 남겨둔다.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보여주는 게 다큐라고 말하는 듯하다. 이 감독은 그동안 삶과 죽음의 성찰을 담은 휴먼 다큐 영화를 제작해왔다. /연합뉴스

드라마 ‘여로’ 원로배우 최정훈 별세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 ‘인생은 아름다워’ 등에 출연했던 배우 최정훈이 별세했다. 향년 83세.

11일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폐렴으로 지난 10일 정오께 세상을 떠났다.

1940년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1년 KBS 1기 공채 탤런트로 정식 데뷔했다. KBS 일일드라마 ‘여로’(1972)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 김성준 역을 맡아 큰 인기를 끌면서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고, 이후에도 KBS 대하드라마 ‘대명’(1981), ‘개국’(1983), ‘새벽



(1985), ‘토지’(1987) 등에 출연했다.

2007년에는 최고 시청률 36.8%(닐슨코리아 제공)를 기록한 SBS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에서 흥준표(김상중 분)의 아버지 흥희 장역을 맡아 다시 주목받았다. SBS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2010), ‘여인의 향기’(2011) 등에도 출연한 바 있다. /연합뉴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성수동골짜배기나주영산포점
전남 나주시 예향로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골짜배기2개 1000원, 옛날햇도그1개 1000원
치즈햇도그1개 1500원, 찰떡도너스2개 1000원
팔도너스1개 1000원, 흑임자도너스1개 1000원
☎ 061)337-7987, 010-7732-6955

면쟁이
동구 산수동 518-14, 경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듬,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주)쓰리에이치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운열, 지압, 뜸, 마사지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쪽)
구두수선·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옛것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찰청담벼락빌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일동)
수강생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생,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송가네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흥치마한정식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풍어구이, 주물럭, 찜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터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스트라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문 원비
☎ 062-225-4445, 010-3603-3064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